

문화부, 최순실·차은택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대폭 축소·정리

이제 ‘국립 문화전당’ 활성화 집중해야

정부 문화융성의 전초기지 역할·위상 회복 절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행정·재정 지원도 시급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된 문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이제는 문화융성 정책의 전초기지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에 전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외부 개입에 의해 추진됐다는 논란이 있는 문화사업들을 모두 재정 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은 과감한 정리 등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다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278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이 대폭 축소,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한 사업으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대한민국 문화정책을 구현해온 문화전당을 축으로 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는 우선 문화전당에 관련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광주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1차 예산심의에서 편성된 내년도 문화전당 전체 예산은 402억원이다. 올해 예산 724억보다 322억원 줄어 44.4% 감소한 액수다. 핵심인 ‘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는 올해 예산 대비 43%인 328억원에 불과하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시, 지역 정치권이 나서 문화전당 예산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정부가 미온적인 상태”라며 “정부가 새롭게 문화정책의 틀을 짜되, 광주와 문화전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

부했다. 문화전당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화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실상상 정부가 방치한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절실하다. 이 사업에 포함된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답보 상태다. 광주 5개 자치구를 7대 문화권으로 나눠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사업이 골자지만, 현재까지 결실을 본 사업은 문화전당 건립뿐이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정부가 문화융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그 전초기지인 문화전당 활성화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문화전당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아이콘이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현재 지도부 공백상태다. 문화전당이 지난해 11월 개관했음에도 전당장 직무대리 체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문화전당에 대한 기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문화부는 지난 10월10일자로 핵심보직인 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문화창조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나, 현재 무려 20여 일째 해당 직위를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해 7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총괄해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직제를 축소해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소속 1개 과(科)로 전락시키는 등 ‘고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포승줄에 묶인 최순실 긴급체포된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일 오전 검찰 조사를 계속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사실상 강요에 의한 출연

검찰, 롯데측 진술 확보...오늘 최순실 영장·안중범 소환

검찰이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 최순실씨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재단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기사 2·3·4면>

말개는 10여 개까지 혐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검찰은 우선 수사의 발단이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대규모 모금이 이뤄지는 과정과 그 성격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 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롯데그룹 측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와 안중범 전 수석이 재단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롯데 추가 모금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확인했다는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롯데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최씨 측에 거의 강제적으로 기금을 내줬다가 다시 돌려받아 ‘피해자’와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3野, 국정조사·별도특검 추진 합의

거국 중립 내각은 입장차

5·18 특별법 등 공조 재확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1일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해 의혹을 규명하고 특별법에 의한 별도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야 3당은 최근 국정농단, 국기 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와 특검은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진의를 의심 받지 않으려면 특검과 국조를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거국 중립 내각’은 각 당의 입장차에 따라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 9월 합의한 검찰개혁,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5·18 특별법 처리 등 6개 항에 대한 야권 공조도 재확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황당한 ‘경차사랑 카드’ ▶6면
‘바다 르네상스’ 국가 어항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 ... 6일 5·18 구묘역에 안장

지난해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서울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국가폭력’에 희생된 보성 농민 고 백남기씨가 오는 6일 광주 서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에 안장된다.

<관련기사 7면>

백남기 농민 투쟁본부는 고인의 장례를 민주사회장으로 치른다고 1일 밝혔다. 5일 오전 9시 명동성당에서는 염수정 추기

경 집전 아래 장례 미사가 열리며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영결식이 거행된다.

고인의 시신은 이날 밤 고향 보성으로 옮겨져 하룻밤을 보낸 뒤 6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에서 열리는 광주 금남로 5·18광장으로 운구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설화수 자음생크림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